

10월 추가인상 ‘기본 시나리오’… GDI·근원물가가 판가름

한은, 기준금리 2.75% ‘긴축’

금통위, 의결문에 ‘인상 기조’ 명시
성장흐름 따라 내달 인상 가능성
다음 인상시기 8월·10월 관심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p) 올리면서 3년6개월 만에 금리인상(긴축) 국면에 들어섰다. 7월 인상이 1회성 인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다음 인상이 8월이 될지, 10월이 될지로 옮겨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연 2.75%로 인상했다. 금통위원 7명 전원이 인상에 찬성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까지 명시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의 경로는 사전에 결정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며 “앞으로 있을 몇 차례 회의가 다 살아있는 회의, 라이브 미팅”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에서는 8월 금리를 동결한 뒤 10월 추가 인상에 나서는 경로를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다만 신 총재가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에도 선을 긋지 않으면서 다음 주 발표되는 2분기 국민소득 통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와 다음 달 4일 나오는 7월 물가가 첫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 8월 연속 인상, GDI·근원물가가 가른다

신 총재가 8월 인상 여부를 판단할 핵심 지표로 직접 지목한 것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과 국내총소득(GDI), 7월 근원물가와 생활물가다.

올해 1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지만 GDI는 13.2% 늘었다. 반

도체 수출가격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GDI가 GDP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

신 총재는 “소득 개선이 아주 강하게 계속 현실화한다면 수요 쪽에서 오는 물가 상승 압력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이 수요 측 물가 압력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했다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 사례도 거론했다. 그는 “수요 쪽에서 오는

압력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데 금통위 전체가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지는 앞으로 입수될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장 흐름도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신 총재는 한은이 지난 5월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6%에 대해 “지금 판단으로는 너무 낮다”며 “8월 통방 때는 상당 폭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초로 예상했던 GDP갭의 플러스 전환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2분기에도 GDI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7월 근원물가와 생활물가가 좀처럼 둔화하지 않을 경우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은 커질 전망이다.

◆ ‘자전거 아닌 유조선’… 8월 쉬면 10월

다만 신 총재는 연속 인상을 미리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인상 속도와 관련해 “통화정책은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고 큰 유조선을 타는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다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의 파급효과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지난 5월 금리 동결에 대한 설명에서도 데이터 의존적인 접근이 드러났다.

신 총재는 “그때(5월) 사실 금리를 올릴 수도 있었다”며 “당시에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고 중동 상황도 불확실한 차례 더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같은 판단 기준은 오는 8월에도 적용될 수 있다. 2분기 GDI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7월 근원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경우 한은이 8월에는 금리를 유지하고 10월까지 추가 데이터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금통위원들의 조건부 금리전망은 연내 한 차례 이상의 추가 인상에 무게를 실는다. 지난 5월 점도표의 21개 점 가운데 10개가 3.00%에, 7개가 2.75%에 찍혔다. 3.25%와 2.50%에는 각각 2개가 제시됐으며 중간값은 3.00%였다. 7월 기준금리가 2.75%로 오른 점을 고려하면 한 차례 추가 인상을 반영하는 수준이다.

신 총재는 “이번 내부 논의도 점도표와 대체로 부합하고 새로 입수한 정보가 반영됐다”며 “구체적인 전망은 8월 금통위 이후 공개될 점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대출금리 ‘들썉’… 주담대 8% 시대 온다

한은, 기준금리 인상 후폭풍

5대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 6.58%
고정형·혼합형 1.26%p 오른 7.49%
기준금리 추가 인상때 8% 넘길수도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8%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6개월 주담대 변동금리는 지난 16일 기준 연 4.13~6.58%로 집계됐다. 전날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의 산정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월보다 0.15%포인트(p) 오른 영향이다.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05%로, 지난해 1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코픽스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8개 은행이 예·적금과 은행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한 비용을 반영한 지표다.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면 코픽스가 상승하고, 이에 연동된 대출금리도 뒤따라 오르는 구조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같은 날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4.77~7.49%로, 지난해 말의 연 3.93~6.23%보다 하단은 0.84%p, 상단은 1.26%p 높아졌다.

문제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물가와 환율 흐름에 따라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가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는 현재 금리와 코픽스가 더 오르면서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8%대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은은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하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도는 흐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크게 웃돌았다. 물가 상승 압력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경우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오는 10월과 내년 상반기(2회)까지 세 차례 추가 인상에 나서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릴 것이란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준금리 인상때 따른 대출금리 상승은 차주의 이자 부담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종욱 국회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기준금리가 0.25%p 오를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총 1조 8000억원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584만 3000원에서 613만 9000원으로 29만 6000원 늘어난다.

향후 추가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 이자 부담액은 더 빠르게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유리 기자 yul115@

임종룡 “하반기, 도약의 발판 확보해야”

우리금융,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

우리금융그룹이 ‘고객 기반 확대’와 ‘생산·포용적금융 확대’를 하반기 경영 목표로 설정했다. 증권·보험 계열사 편입 이후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체질 개선이 본격화한 만큼 다양한 고객 기반을 확보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미래 성장성도 확보한다는 목표다.

우리금융은 지난 16일 임종룡 회장 주재로 은행·증권·보험 등 16개 계열사 대표 및 지주사 경영진이 참여하는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는 ‘고객 기반 확대’를 주제로 계열사별 논의를 진행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2분기는 우리금융이 다시 자신감을 되찾는 계기였다면, 하반기는 도약의 발판을 확보해야 하는 시간이다”라며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뛰는 환경에서는 더 빠르게 움직이는 조직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리금융

우리은행은 ‘타깃고객 확대전략 및 그룹 공동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보험계열사들은 ‘그룹 시너지·비금융 연계서비스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카드는 ‘세대별 특화 마케팅 전략’을, 우리투자증권은 ‘시장 트렌드에 기반한 고객 확대 방안’ 등 종합금융그룹에 걸맞은 고객 기반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임종룡 회장은 ▲신규고객 확보 ▲기존고객 유지 ▲고객 복합화 등 고객 유치·확대 전략을 중장기 경영계획의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금융위, 불공정거래 30여건 고발·통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주년

금융당국이 지난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40여 건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그 중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및 통보했다. 고발 조치된 사례 가운데는 시세조종 혐의가 가장 많았으며, 1인당 부담이익은 약 14억원, 혐의자 수는 25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 2주년을 맞아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를 평가하는 한

편, 향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도입 이후 총 40여건의 불공정거래 사례가 적발됐으며, 금융당국은 개별 조사를 거쳐 그 중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및 통보조치했다. 고발된 사례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이 대부분으로, 일부 가상자산 부정거래 사건도 포함됐다.

시세조종의 경우 ‘경주마’나 ‘가두리’ 등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악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이 주로 적발됐다. 또한 AP 1기 대여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 사건, 발행채단과 연계하고 대규모자금을 동원한 해외거래소 연계 사건 등 중·장기 시세조종 사건도 적발됐다.

부정거래 사건은 가상자산 발행자가 SNS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매를 유인한 사건이나 코인거래소 내 마켓 간 가격(테더·비트코인 등)을 악용한 사건 등이 적발됐다.

적발 및 고발된 혐의자는 총 25명으로, 1인당 부담이익은 1인당 평균 14억원으로 집계됐다.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부담이익 5억~50억원 구간이 8건, 50억원 이상 구간이 1건 포함됐다. /안승진 기자

이번주, 전국 12개 단지서 8905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7월 넷째주에는 전국 12개 단지 총 890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6017가구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삼동 ‘의왕역SK뷰’, 경기 오산시 양산동 ‘오산헤리티지자이(1·2단지)’, 강원 춘천시 동면 ‘춘천리버뷰아이파크’, 부산 기장군 장안읍 ‘부산장안지구중흥S-클래스’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강원 춘천시 동면 장학리 일원에서 ‘춘천리버뷰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2개동, 전용면적 59·84㎡ 총 26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춘천로, 순환대로 등을 통해 춘천시내 이동이 편리하다.

모텔하우스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중흥S-클래스리베르’, 경기 양주시 회정동 ‘GTX회천대광로제비앙모아엘가’, 경남 창원시 회원동 ‘창원한신더휴메가센트’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중흥토건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일대를 재건축한 ‘월계중흥S-클래스리베르’를 분양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